

석유제품 구매카드제도 2006년 중단

석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도입된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가 수수료 문제와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2006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유류구매전용카드의 은행권 수수료 협상이 결렬돼 2006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유기업, 주유소협회 등에 보냈다고 12월6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정유기업들은 0.03%의 수수료 유지를 원하는 반면 은행권은 정액수수료 20억원에 0.05%의 수수료를 요구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구매전용카드 가입대상인 주유소 등의 가입률이 제도 시행 1년이 넘은 11월말 현재 18.9%에 머물 정도로 저조한 것도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 중단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업자들의 유류 매매현황이 파악돼 투명한 석유제품 유통이 가능하지만 거래 실적이 드러나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들이 가입을 꺼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07>